

Formosa, PP 합성지 한국에 공급

고광택 사진 컬러 잉크젯 인화지 ... 국내 석유화학시장 진출에도 관심

Formosa Korea가 사진 칼라 잉크젯 프린터 용지인 <디카~짱>을 개발해 출시했다.

Formosa Korea에 따르면, <디카~짱>은 기존의 종이 인화지가 아닌 PP 합성지인 <백진주>를 이용함으로써 종이 인화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, 교정지에 버금가는 최적의 색상 재현력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에 번지거나 찢어지지 않으며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친화용지이다.

Formosa Korea의 <디카~짱> 출시는 지난 2002년 11월 플라스틱 종이인 <백진주>에 이어 2번째 사업 아이템으로 석유화학제품 시장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다.

그러나 Formosa Korea는 국내 석유화학시장 진입을 위해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국내 플랜트 신설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.

Formosa Korea는 Formosa의 국내 석유화학시장 진입은 기존의 석유화학시장의 재편이 아니라 수요기업의 안정된 원료 공급처 확보와 석유화학제품 생산기업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 <배연호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8/06>